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남한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 연 숙[†]

통일부 하나원

강 혜 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남한여성과의 비교를 보고,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각각의 진로관련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여 진로·취업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과의 남한여성 두 집단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진로장벽의 전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요인 중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탈북여성은 진로장벽의 노동시장관련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에서 남한여성보다 높았고, 진로결정수준에서는 남한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북여성과의 남한여성 두 집단 각각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의 설명량은 탈북여성의 경우 29.6%, 남한여성의 경우 41.1%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설명량은 탈북여성의 경우 20.9%, 남한여성의 경우 38.7%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이 탈북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남한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요인이 탈북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이며 남한여성의 경우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나타난 점은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주요어 : 탈북여성, 남한여성,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 교신저자 : 전연숙, 통일부 하나원, (456-883)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울곡리 산106-5
E-mail : youn402@hanmail.net, Tel : 031-670-9433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2월 말 현재 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탈북여성의 급격한 증가인데 1989년 이전까지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에 불과한 여성비율이 2000년에는 42%, 2006년 76%, 2007년 78%이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까지 입국에 가세하면서 입국자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일부, 2008). 이들은 입국 후 정부가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지원정책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금순 외(2003)와 선한승 외(2005)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을 41.5%와 37.6%로 보고하고 있으며, 허선행과 윤여상(2008)도 22.9%의 실업률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국내 실업률 2003년 3.8%, 2005년 3.5%, 2008년 3.3%보다(통계청; 2009.5.24검색)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방향을 2005년 ‘보호’에서 ‘자립·자활 지원’ 중심으로 이동하여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12주 사회적응교육의 40%이상을 직업 및 취업교육에 집중하는 등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의 척도로 중요시 하고 있다(노경란, 전연숙, 2009).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현황(선한승 외, 2005; 이금순 외 2003),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강일규, 김종우, 2007)과 같이 정부차원의 정착지원제도 개선과 지원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취업을 강조하며

정책대안으로 취업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개선과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개선과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과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는 취업률, 직업안정성, 소득 등 경제적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전체적인 현상을 서술하는 경향으로 진행되어왔다(양지윤, 2008). 또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노경란 외, 2007; 전연숙, 2003; 허은영, 2009)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별로 진로와 직업관련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남한사회에서 적응해 나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에 대한 연구를 남한여성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적응사례, 높은 실업률이 보여주는 현상만을 문제시 하고 있으며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탈북여성의 부적응 문제의 해결로 보는 견해로 그들이 근본적으로 취업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관건은 취업(노경란 외, 2008; 이성재, 2003)이라는 점에 연구적 관심을 가지고 탈북여성을 남

한여성과 비교하여 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국내 진로장벽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청소년, 대학생, 성인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진로발달과정의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김은영, 2001; 김영경, 2008; 손은령, 2001; 이성식, 2007; 정민·노안영, 2008; 황매향 외, 2005, 최영숙, 2004)가 진행되고 있으나 탈북여성과 같이 소수자 대상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탈북여성의 경우 남한사회와 전혀 다른 체제, 문화 및 언어권에서 살아왔고,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경력의 상이함, 경력수준의 차이뿐 만 아니라 탈북과정에서의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전에 겪는 불안 등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하여 직업선택과 결정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특히 Gottfredson (1981)의 타협 제한 이론에서는 개인이 직업포부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만나게 됨으로 포부를 제한한다고 제안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장애를 지각함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대처차원에서 진로탐색과 선택에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김선중, 2005; 김영경, 2008; 이성식, 2007; Hackett & Betz, 1981)와 같이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나아가 취업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진로상담에서 낮게 지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결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한사회 적응에도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으나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온 체제와 언어와 문화, 나아가 산업사회의 발달상황이 서로 달랐기에 서로가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도 다를 것이라 예상되며,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여성을 남한여성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어떤 특성을 이해하여 탈북여성 대상의 진로상담을 남한여성과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들이나 조건들'(Swanson과 Woitke, 1997)로 여성 진로 발달과정의 진로선택 및 진로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다(손은령, 2001). Lent, Brown과 Hackett(1994)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진로장벽을 성향, 성, 인종·민족, 신체장애,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 설정 및 수행으로 전환되는 진로발달과정을 중재한다.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직업적 흥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에 진로장벽 극복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중요한 진로상담 목표이다(김영경, 2008 재인용). 손은령(2001)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요인을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구명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서는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수록 진로행동변인,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이 낮아진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손은령, 손진희, 2005)는 보고가 일반적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uzzo와 Hutcheson, 1996). 진로장벽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그 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wanson, Daniel과 Tokar, 1996). 그러므로 내담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파악·분석하여 그 지각의 현실성 및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Brown과 Lent, 1996). 왜냐하면 어떤 진로장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진로선택과 진로결정과정 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처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결정에 적용한 것으로서,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Hackett와 Betz, 1981) 또는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이다(정민, 노안영,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론은 Hackett와 Betz(1981)가 진로발달 이론에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키면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직업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Taylor와 Betz(1983)는 수학이나 과학, 혹은 공학계열과 같은 특정 진로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는 달리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개발하였고 Betz,

Klein과 Taylor(1996)가 CDMSES -SF(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로 개정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진로결정, 진로정체성, 진로성숙도 등 진로발달 변인과 CDMSES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조성연, 문미란,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이 있다는 보고(강정은, 2008; 김영경, 2008; 이기학, 이학주, 2000; 이성식, 2007)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Luzzo와 Jenkins, 1996; Swanson, Daniel과 Tokar, 1996)가 있는 등 일관적이지는 않다. 여대생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진로장벽 수준에 따라 부적 영향을 받는 것처럼(김봉환, 2007) 진로선택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결혼과 육아·가사로 인하여 취업을 보류하였던 성인여성에게도 중요한 진로과업으로 역시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에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이성식, 2007)로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은 여성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진로발달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Swanson, Daniel과 Tokar, 1996). 국내 연구에서 김은영(2001)과 손은령(2001)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진로장벽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장벽 인식에 의해서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등 성인여성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 지각 정도와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한 진로발달 관련 변인 연구들은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여성이며,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진로특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북여성을 남한여성과 동등한 진로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데는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탈북여성은 정치·경제·사회체제가 다른 이(異)문화권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이들만의 진로관련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은 진로발달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진로관련 변인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각 집단에 효과적인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국 초기부터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탈북여성과 노동시장의 초기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하여 직업훈련 참여 중인 남한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수준은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북한 탈출과 중국·태국 등 제 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기관인 통일부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탈북여성 106명과 경기도 소재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 중인 남한여성 90명 등 총 196명이다.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진로장벽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

본 연구에서는 손은령(2001)이 제작한 진로장벽검사를 수정·축약한 이성식(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6개요인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장벽 하위요인별로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방해할 것인지 예상되는 정도에 따라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진로장벽의 방해 정도를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

표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괄호 안은 %)

변인		전체	탈북여성	남한여성
나이	20세 이하	5 (2.6)	2(1.9)	3(3.3)
	20~29세	56(28.6)	29(27.4)	27(30.0)
	30~39세	72(36.7)	46(43.4)	26(28.9)
	40~49세	52(26.5)	25(23.6)	27(30.0)
	50~59세	10 (5.1)	3(2.8)	7(7.8)
	60세 이상	1 (0.5)	1(0.9)	0(0.0)
학력	초등(인민)학교 졸	5 (2.6)	5(4.7)	0(0.0)
	중·고등(고등중)학교졸	85(43.4)	82(77.4)	3(3.3)
	전문대(전문학교) 졸	55(28.1)	15(14.2)	40(44.4)
	대학교 졸 이상	51(26.0)	4(3.8)	47(52.2)
직업경험 유무	있다	152(77.6)	91(85.8)	61(67.8)
	없다	44(22.4)	15(14.2)	29(32.2)
합 계		196(100.0)	106(100.0)	90(100.0)

에 사용한 도구들은 탈북여성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탈북여성 2인의 안면타당도와 북한이 탈주민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을 이은진(2001)이 국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2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자신감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는 김은영(2001)의 연구에서는 .85, 이기학과 이학주(2000)에서는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검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Osipow 등(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과 미결정성을 측정하는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결정문항 16문항을 역코딩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4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의 신뢰도는 Osipow(1976)이 검사-재검사 신뢰도 .90과 .82, 고향자(1992)는 Cronbach α .86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91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탈북여성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여성(20~60세) 교육생 127기 106명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남한여성은 경기도 소재 직업훈련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90명은 학교의 협조를 받아 담당 직업훈련교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이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WINDOWS SPSS 16.0을 사용하였다.

결 과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장

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t*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진로장벽 전체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675, p>.05$). 그러나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t=3.747, p<.001$)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t=2.712,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421, p<.001$).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은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해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3.746, p<.001$). 위 결과를 통해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진로장벽의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았고, 진로결정수준은 남한여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탈북여성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부적상관(-.49, $p<.01$)이 진로결정수준 간 부적상관(-.39, $p<.01$)보다 높은 반면, 남한여성의 경우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부적상관(-.52, $p<.01$)이 진로결정수준 간 부적상관(-.57, $p<.01$)보다 낮게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

표 2.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t검증 결과

구분	탈북여성(N=106)		남한여성(N=90)		t	
	M	SD	M	SD		
진로 장벽	전체	88.39	19.03	86.61	17.56	.675
	차별	16.39	3.62	17.63	5.51	-1.896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16.38	5.02	17.02	4.91	-.905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12.98	4.30	13.12	3.78	-.242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13.42	3.40	11.63	3.21	3.747***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18.59	4.40	16.99	3.79	2.712**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10.63	3.00	10.21	2.76	1.016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전체	90.25	12.48	80.41	12.25	5.421***
	자기평가	19.49	3.13	17.21	2.96	5.161***
	목표선택	18.75	3.22	16.36	3.03	5.251***
	직업정보	17.82	2.58	16.78	2.79	2.713***
	문제해결	15.15	2.29	13.68	2.31	4.471***
	미래계획	19.04	3.10	16.56	3.06	5.614***
진로결정수준	35.91	8.08	40.17	7.76	-3.746***	

* p<.05, **p<.01, ***p<.001

표 3.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탈북여성			남한여성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9**	-		-.52**	-	
진로결정수준	-.39**	.23*	-	-.57**	.49**	-

* p<.05, **p<.01

정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모든 변인 간에서 남한여성이 더 높은 상관을 보여 주었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탈북여성과 남한여

표 4.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중다선형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F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차별	-.376	-.109	.296	6.889***	
	탈북 여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402			.161
	진로 장벽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1.169			-.402**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250			-.068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312			-.110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284	-.068		
		차별	.140	.063	.411	9.666***
	남한 여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088	.035		
	진로 장벽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1.277	-.394***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994	-.261**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692	-.214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112	-.025			

* $p < .05$, ** $p < .01$, *** $p < .001$

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탈북 여성의 경우에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이, 그리고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과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남한여성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과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은 탈북여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29.6%, 남한여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4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서 남한여성이 탈북여성보다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탈북 여성의 경우에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가, 그리고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표 5.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중다선형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F
진로 결정 수준	차별	.333	.149	.209	4.371***
	탈북 여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104	-.065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067	-.035		
	진로장벽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659	-.277*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491	-.267*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040	.015		
	차별	-.228	-.162	.387	8.724***
	남한 여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090	.057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245	-.119			
진로장벽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332	-.138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183	-.090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990	-.352**			

* $p < .05$, ** $p < .01$, *** $p < .001$

여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으며, 남한여성은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은 탈북여성 진로결정수준의 20.9%, 남한여성 진로결정수준의 3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남한여성이 탈북여성보다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집단별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여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시 남한여성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과 남한 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장벽의 지각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진로장벽 전체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 중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요인인 차별,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준비부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남한여성이 탈북여성보다 높은 지각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해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요인 즉,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움을 더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로써 두 집단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대처방안 접근에 있어서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즉 직업정보, 직업탐색, 직업전망 등과 직업선택 및 결정능력, 노동시장의 요구를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한다면 진로장벽의 지각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탈북여성과 남한 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모두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하여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일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음에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해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과 변인은 다르지만 허은영과 강혜영(2007)의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자기효능감 비교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결과와도 상이하며, 그녀들이 지적한 탈북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자기효능감이 막연히 남한청소년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이 잘못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막연히 진로장벽수준이 높고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 또한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자가 북한이탈주민 내담자를 상담함에 있어서 내국인 내담자의 일반적인 성향이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김경미(2002)가 최근의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국한 성공 경험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탈북여성이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과 근거 없는 확신, 비현실적인 진로기대가 행동주의 경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즉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목표가 단순히 진로장벽 지각 수준을 낮추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진로기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부여와 자신과 직업의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합리적인 진로결정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기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시 현장 체험과 같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하여 진로결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허은영과 강혜영(2007)의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결과와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김영경, 2008)한 선행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탈북여성 대상의 진로상담에서 남한 사회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결정 시 비현실적이 진로기대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타협하는 눈높이 조절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하면 연구결과에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에 부적 상관으로 나타난 것처럼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수준은 낮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넷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지 탐색하였다. 먼저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29.6%의 설명력을 가진 반면, 남한여성은 41.1%의 설명력을 가졌다.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34.5% 설명하였으며, 손은령과 손진희(2005)에서는 28% 설명량을 보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해보면 남한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는 탈북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외 하위요인인 차별,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과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로 볼 때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진로장벽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준비 부족’에서는 남한여성에게서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 즉, 의사표현력, 지도력, 의사결정력과 같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 자신감과 의욕, 스트레스 조절 능력 향상 등은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 즉, 취업방법, 직업의 종류와 전망 탐색, 직장경험, 직장적응 방법 등은 두 집단에 각각 다른 진로상담 개입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수준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지 탐색하였다.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전체는 진로결정수준을 20.9%, 남한여성은 38.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대학생이라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손은령과 손진희(2005)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을 40%설명해 주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비교에서 탈북여성보다 남한여성이나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탈북여성의 설명력이 남한여성이나 대학생보다 낮은 이유는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거나 탈북여성만이 지니는 다른 진로장벽이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도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남한 내담자를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탈북여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하위요인 즉, 문화의 변용정도, 언어의 차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 다른 변인의 영향력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추측된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는 탈북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가,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탈북여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노동시장 관련 변인이, 남한여성의 경우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여성의 경우는 탈북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진로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한여성의 경우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방법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한여성은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북여성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인데, 남한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직장에서의 낮은 임금, 입직과 승진에서의 제한으로 인한 지각수준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탈북여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에 대한 인식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고정관념에 더 높은 장벽을 느끼고 있거나 남녀평등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면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도 각각 집단

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여성은 남한사회의 노동시장 현실과 상황 파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예측 가능하며, 노동시장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지각과 판단에 의한 진로탐색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취업실패와 부적응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탈북여성은 진로결정효능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진로결정에 있어서는 남한여성보다 신중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며 특히 탈북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관련 변인의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탈북여성의 진로관련변인을 지각하는 특성이 남한여성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소수집단으로 암묵적 규정 하에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선한승 외, 2005; 이금순 외, 2003)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진로장벽 차원에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예측 변수를 밝힘으로써 두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진로상담 개입방법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과 단서를 제공했다. 셋째, 진로상담 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탈북여성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북여성의 진로상담을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발달과정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지각수준과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두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개입방법이 개발되어 진로상담시 활용할 수 있어야 그들의 취업지원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한 내담자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타당화를 거쳐 탈북여성에게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관계망 상실 등이 적용장애 요인이라는 보고(김미령, 2005)와 사회적 연결망과 문화차이의 취약함, 사회적 배제, 성차별, 언어적응의 어려움, 학업 부적응을 진로장벽으로 경험한다는 지적(양지윤, 2008)에서도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들로는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김현아(2004)도 북한이탈주민 성향에 맞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듯이,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특성을 반영한 도구의 개발을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각 두 집단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중인 탈북여성 106명과 경기도 소재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중인 남한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표집과 관련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하나원 수료 후 탈북여성,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일규, 김종우 (2007). 새터민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미 (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05).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95-124.
- 김보환 (2007). 집단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지각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4), 1453-1465.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경 (2008). 대학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현아 (2004). 북한이탈주민의 품행장애 행동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2(1), 105-168.
- 노경란, 안혜영, 전연숙, 김임태, 김선화 (2008).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노경란, 전연숙, 김임태, 손종욱, 편도인 (2007).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노경란, 전연숙 (2009). 입국초기 북한이탈주민 대상 단기 진로개발교육 효과 연구: 학습자의 진로인식수준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1), 245-276.
- 선한승, 강일규, 김영윤, 윤인진, 이영훈, 정성훈, 김화순 (2005).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재 (200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도 현황과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지윤 (2008). 여성 새터민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연숙 (2003).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 노안영 (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91-405
- 조성연, 문미란 (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31-748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허선행, 윤여상 (2008).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허은영 (2009).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은영, 강혜영 (2007).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비교. *상담학연구*, 8(4), 1485-1500
- 최영숙 (2004). 진로장벽에 직면한 직업복귀 여성의 진로타협유형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http://www.kosis.kr/html/autoJipyo/jipyo_h_view.jsp
- 통일부 (2008). 내부자료

-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Gottfredson, G. D.(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Hackette,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8, 326-339.
- Luzzo, D. A., & Hutcheson, K. G. (1996). Casual attributions and sex difference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occupational barri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124-130.
-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45, pp. 79-122.
- Osipow, S. H., Cam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Measur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pp. 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Taylor, K. M., & Betz, N.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1 차원고접수 : 2009. 8. 09.
심사통과접수 : 2009. 8. 28.
최종원고접수 : 2009. 9. 26.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for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Compared with South Korean females**

Yeon-suk Jeon

Ministry of Unification, Hanawon

Hye-young Ka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such a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of North Korean females compared with those of South Korean females, and also to research the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affected by Career Barriers.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career variables to provide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with basic information services for career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are analyzed for each of the groups,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and South Korean females. The overall Career Barriers makes no differences but the sub-factors, 'the preparation lack of labor markets and the limits and low expectations of labor markets' are significant. That is,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re higher than those of South Korean females and their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are lower than those of South Korean females. Second, it is analyzed how much influence Career Barriers have on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The survey says, as Career Barriers, the 29.6% of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and 41.1% of South Korean females regarding the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nd 20.9% of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and 38.7% of South Korean females regarding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explanationability of all of the variables is lower than that of South Korean females.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is the meanings of the research and the suggestions.

Key words :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South Korean fema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